【 2017.1.25(수) 강원일보 】

새해 초부터 대규모 건설공사 1조2천억원대 풀려 경기 활력

주택 수급정책 발맞춰 지역 곳곳에 신축공사 시 상권 연계방안 모색

【춘천】새해를 맞아 춘천시의 건설경기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꿈틀대고 있다.

춘천시에 따르면 24일 현재 지역에는 총 7개 단지 5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신축되며 14개의 타워크레인이 돌아가고 있다. 1개 타워크레인이 세워지는 경우 200~300여명의 건설 노동자가 투입된다고 볼 때, 현재 4,000여명이 춘천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경기부양을 이끌고 있다. 사업규모만 6,000억원대에 이른다. 여기에 다음 달 퇴계동 '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'와 후평3단지 '우미린'이 착공하면 15개의 타워크레인이 더 들어서며 총 29개 타워크레인에 1조2,000억원대의 사업이 춘천 곳곳에서 이뤄지게 된다.

이 같은 현상은 시가 2030년 인구 45만명에 맞춘 주택수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. 우선 2022년까지 23~24개 아파트 단지에 단독주택을 포함해 2만8,000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. 이와 함께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강북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. 현재 강북지역에는 우두택지 단 1곳의 공동주택단지만 조성되고 있다.

시는 공동주택 건설 붐을 실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. 그 첫 번째로 건설현장 식당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인근 식당가 이용률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. 이미 시가 발주한 청사 신축현장은 식당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. 이무헌기자

【 2017.1.25(수) 강원도민일보 】

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25일 오전 11시30분 횡성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다.

【 2017.1.25(수) 건설경제 】

건협 강원도회, 강원 건설교통국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

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(회장 오인철·사진)는 강원도 건설교통국과 공동으로 25일 강원도 횡성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와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을 진행한다. 이번 행사에는 도 건설교통국장 등 건설교통국 직원과 유관단체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.

전통시장 장보기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고, 이날 구매한 물품은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.

건설공제조합, 5개 공제상품 요율 평균 5.5% '↓'

건설공사공제 등 31일부터 적용

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공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건설공사공제 등 5개 공제상품의 요율을 평균 5.5%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.

올해 상품별 평균 인하율은 △건설공사공제 5.8% △조립공제 11.3% △근로자재해공제 6.4% △해외근로자공제 9.4% △영업배상책임공제 0.7% 등이다.

조합은 지난 2012년부터 직접 상품개발과 보상을 수행하는 보유공제 방식으로 바꾼 후 매년 공제료율을 낮춰왔다.

조합은 손해보험사와 영업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성과관리 강화와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통해 공제인수 실적이 77% 증가했다.

또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지금까지 공제요율을 각각 건설공사공제 43%, 조립공제 51%, 영업배상책임공제 38%, 근로자재해공제 19%, 해외근로자재해공제 25%를 인하했다.

조합 관계자는 "이번 요율 인하로 손해보험시장에서 최저 수준의 공제요율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게 됐다"며 "민원발생 제로(0)를 유지해 단순히 싸게 파는 상품이 아닌 최고의 보상서비스를 담보하는 명품 공제상품을 만들겠다"고 말했다.

김태형기자 kth@